

광주FC, '천적' 강원 잡고 상위권 도약 노린다



하나은행 K리그1 2026 5라운드 경기에서 광주FC 유제호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내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서 강원전 최근 5경기 맞대결 모두 패배...부상병 복귀 주목

A매치 휴식기를 마친 프로축구 광주FC가 '천적' 강원FC를 상대로 승점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4일 오후 4시 30분 강릉하이원아레나에서 강원과 하나은행 K리그1 2026 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개막 이후 5경기를 치른 광주FC는 현재 1승 3무 1패 승점 6점으로 리그 6위(4득점)에 위치해있다. 개막전 무승부에 이어 4경기 동안 1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던 광주는 최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5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았다.

최근 A매치 휴식기를 마친 K리그1의 초반 순위 싸움은 치열하다. 3위부터 11위까지 인접한 팀들과 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광주는 4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6·6득점), 5위 부천FC1955(승점 6·5득점), 7위 포항스틸러스(승점 6·3득점)와는 승점차이가 없거나 득점차로 순위가 갈려있다. 위로는 3위 전북현대모터스(승점 8) 정도와 뒤집힐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아래로는 8위 FC안양(승점 5), 9위 김천상무FC(승점 5)가 1점 차로 맹추격 중이다.

또 10위 인천유나이티드(승점 4), 11위 강원FC(승점 3)가 바로 아래 있다.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거나 하위권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는 서울전 패배 이전까지 4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 예시로 거둔다. 부주장 신성무를 비롯해 새로운 중원의 핵으로 자리 잡은 유제호와 문민서 콤비, 2007년생 센터백 듀오 김용혁과 공백현의 성장까지 팀 전력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광주는 이번 A매치 휴식기 동안 체력과 컨디션 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김경민과 유제호는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고, 신창무·하승운·문민서·김진호 등 주전 선수 다수가 매 경기 출전하며 피로도가 높았던 만큼, 휴식기를 통해 재정비의 시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달 26~28일에는 훈련을 소화하며 다양한 전술과 선수들을 테스트했다.

고무적인 점은 베테랑 미드필더 주세종 등 일부 부상 선수들이 강원전 출전을 목표로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어, 전력 운영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광주는 휴식기를 통해 충진한 체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득점 기회를 살리고 실점을 최소화해 원정 첫 승을 노린다는 각오다.

상대 강원은 올 시즌 K리그1,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포함 공식전 9경기에서 6무 3패로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ACLE 일정과 리그를 병행하며 휴식기 없이 이어진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극복해야 한다. 다만 강원외의 외국인 공격수 아부달라가 팀 특유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며 위협적인 존재로 떠오르고 있어 경계 대상이다.

광주는 강원 상대 역대 전적에서 9승 11무 10패로 근소한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강원전 5경기 연속으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강원 원정 승리를 징크스 탈출은 물론 역대 전적 균형을 다시 맞춘다는 계획이다.

완벽한 재출전을 마친 광주가 강원을 꺾고 상위권 도약을 위한 승점 쌓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LPGA 갤러리 날씨 지수 운영 기후 변화 대응 안전지수 안내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가 기상 정보를 반영한 대회 관람 안전 지수인 'KLPGA 갤러리 날씨 지수'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날씨 지수는 기온, 강수, 풍속, 낙뢰, 자외선, 시야, 대기질, 습도 등 총 8개 항목을 균등 가중 방식으로 분석해 산출하는 대회 맞춤형 관람 안전 지수다.

경기 시간 동안의 기상 예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3시간 단위로 총 4회 업데이트로 최신 날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날씨 지수 도입은 최근 폭염과 강풍 등 급격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갤러리에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람 안전 단계는 쾌적, 안전, 보통, 경계, 경보 등 총 5단계로 구분되며 2026시즌 KLPGA 국내 정규투어 전 대회에 적용된다.

갤러리는 KLPGA 공식 홈페이지(모바일 및 웹)를 통해 지수를 상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기상 상황에 맞춰 관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KLPGA는 이번 날씨 지수 도입을 통해 기상 리스크를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갤러리 안전 수준과 대회 운영의 신뢰도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KLPGA는 지난 2025년 9월 안전 관리 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허용가능 안전단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번 날씨 지수 도입으로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예정이다.

앞으로도 KLPGA는 갤러리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욱 쾌적하고 선진화된 관람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박성현과 준프로 계약...구단 최연소 입단

프로축구 광주FC가 U18 금호고 미드필더 박성현과 준프로 계약을 맺었다. 구단 최연소 입단이다.

준프로 계약은 구단 신하 유소년 소속 선수를 대상으로 체결 가능한 계약으로, 아마추어 신분을 유지한 채 K리그 공식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금호고 2학년 재학 중인 박성현은 2009년생만 16세로 구단 최연소 입단 기록을 세웠다.

4일 강원전 출전 시 K리그



금호고 2학년 미드필더...“패기있는 모습 보여줄 터”

그 승강제 도입 이후 K리그1·2를 통틀어 최연소 출전(16세 8개월) 기록 경신도 가능하다.

박성현의 준프로 계약은 2024년 김윤호에 이어 구단 두 번째 사례로, 광주는 어린 나이에도 프로 선수단에서 경쟁력을 보여준 박성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 전격 계약을 결정했다.

박성현은 2021년 축

구 유망주 발굴 프로그램 '골든일레븐2'에 출전해 최종 11인에 선정되는 등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유망주다.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며 구단 내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박성현은 공격형 미드필더 유형의 선수로 감각적인 볼 터치와 공격적인 드리블 능력을 갖춘 자이다. 좁은 공간에서도 탈압박과 전진이 가능하며, 창의적인 공격 전개 능력을 바탕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더하는 플레이메이커로 평가받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최근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보고 회의'를 열고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광주시체육회

시체육회, 2028 전국체전 준비 속도 경기장 점검...종목단체 협력 강화

광주시체육회가 2028년 광주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경기장 점검에 본격 나섰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 1일 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2028 제10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 현장점검 중간 보고 회의'를 열고 종목별 경기장 배치와 운영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체전 준비의 핵심 요소인 경기장 확보와 적정 배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시설 보완과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1일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된 50개 종목, 65개 경기장에 대한 점검 결과가 공유됐다.

월드컵경기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의 활용 가능성 여부와 함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보조경기장 확보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선수와 관람객 동선, 운영 효율성 등 실제 대회 운영을 고려한 실무적인 점검도 병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중간 점검을 계기로 종목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기장별 특성과 선수 경기력 발휘, 관람 편의, 안전관리,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현실성 있는 경기장 배정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전국체전의 성공 여부는 경기장 준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종목별 특성과 운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해 부족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광주가 대한민국 체육 중심 도시로서 성공적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KIA, 홈 개막 시리즈 'V13urn Again' 열린다

3~5일 NC전서 우승 염원 담은 축제 배유람·이제훈·김아람·김의성 시구

KIA타이거즈가 3일부터 5일까지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다이노스와의 2026시즌 홈 개막 3연전을 'V13urn Again'이라는 주제로 다채롭게 꾸민다.

이번 홈 오프닝 시리즈의 테마인 'V13urn Again'은 13번째 우승을 향한 염원과 올 시즌 캐치프레이즈인 '다시, 뜨겁게'를 결합한 명칭이다. 선수단과 팬들이 한마음으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다.

KIA는 홈 개막 시리즈를 맞아 챔피언스필드 안팎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채운다.

선수단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담은 자이언트 폴을 설치해 팬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운영하고, 12개의 역대 우승 엠블럼이 새겨진 만국기와 가로등 배너를 경기장 곳곳에 배치해 축제 분위기를 북돋을 예정이다.

홈 개막전이 열리는 3일에는 경기 전 특별 팬 사인회도 마련된다. 팀의 간판 선수인 나성범과 이의



리가 선수단 대표로 참가하며, 오프닝 시리즈 티켓 예매 팬 가운데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25인조 마칭밴드 '크라운'이 KIA 응원가 메들리를 연주하며 개막전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밴드 '터치드'는 대표곡 'Highlight'와 'Stand Up!' 무대를 통해 홈 개막전의 열기를 더할 계획이다. 선수단 입장 방식도 눈길을 끈다. 기아 EV 라인 차량 13대에 선수단이 나눠 탑승해 그라운드에 입장하며 팬들에게 색다른 장면을 선사한다. 승리 기원 릴레이 시구 행사 또한 진행된다. 3일 개막전에는 배우 배유람이 시구, 배우 이제훈이 시타를 맡는다. 이들은 "지난해에는 우천으로 시구가 취소돼 아쉬움이 컸는데, 올해 다시 홈 개막전

에 초첨을 더한다"며 "타이거즈 홈구장인 챔피언스필드에 행운과 승리의 기운을 가득 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4일 경기에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아람이 시구자로 나선다. 김아람은 "환한 시구로 좋은 기운과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며 "팬들과 함께 열띤 응원으로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겠다"고 언급했다.

3연전 마지막 날인 5일에는 배우 김의성이 시구를 맡아 피날레를 장식한다. 김의성은 "40여년 타이거즈 팬으로서 챔피언스필드 마운드에 서게 돼 꿈만 같고 큰 영광"이라며 "선수단이 부상 없이 시즌을 완주하고, 팬들과 하나 돼 V13의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측가는 3연전 동안 추첨을 통해 선발된 13명의 키즈클럽 회원이 제정한다. 또 팬들과 함께하는 특별 라인업송 응원도 경기 종료 후 뒤풀이 응원전도 열린다. 특히 3일 경기 뒤 뒤풀이 응원전에는 타이거즈 팬으로 알려진 가수 이보람이 함께해 열기를 더한다.

이번 3연전 티켓은 오프닝 시리즈 한정 스페셜 디자인 티켓으로 제작된다. 이와 함께 KIA는 SNS를 통해 팬들의 직관 사진을 공모해 전광판 타이틀 이미지로 제작, 개막전에 선보일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SNS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